



# OPEC 총회 결과와 전망

김 건 흠 <대한석유협회 홍보실장>

**지난** 6월 5일부터 7일까지 빈에서 열린 OPEC (석유수출국기구) 총회는 올하반기의 산유쿼타를 현행보다 1백만B/D 늘린 1천9백50만B/D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OPEC 총회는 또한 현행 「목표가격」을 폐지하는 대신 새로 참고가격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총회 폐막후 발표된 공동성명은 오는 4/4분기의 산유량을 점검하기 위한 가격감시위원회를 오는 9월 22일 파리에서 개최하여 수요초과현상이 있을 경우 10월 이후의 산유량을 2천만B/D로 상향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혀 이번 협정의 효력이 실제로 3/4분기에만 적용되는 것임을 시사했다.

'89하반기 OPEC 회원국별 산유쿼타

(단위: 천B/D)

	'89하반기	'89상반기
사우디아라비아	4,769	4,524
이 란	2,783	2,640
이 라 크	2,783	2,640
베 네 수 엘 라	1,724	1,636
나 이 지 리 아	1,428	1,355
인 도 네 시 아	1,307	1,240
쿠 웨 이 트	1,093	1,037
리 비 아	1,093	1,037
아랍에미리트	1,041	988
알 제 리	733	695
카 타 르	329	312
에 콰 도 르	242	230
가 봉	175	166
합	19,500	18,500

## <산유쿼타>

총회는 당초 지난 상반기중의 산유쿼타 1천8백50만

B/D에서 1백50만B/D 늘린 2천만B/D 수준에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 배분법에서는 1백50만 B/D중 1백만B/D를 회원국에 비례배분하고, 나머지 50만B/D는 쿠웨이트와 아랍에미리트 등에 우선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각국의 이해가 대립되어 결국 합의를 보지 못하고 1백만B/D의 비례배분으로 낙착되었다.

오는 10월 이후 다시 2천만B/D로 산유쿼타를 확대할 가능성을 협정에 삽입한 것은 비례배분에 크게 반발해온 쿠웨이트를 무마시키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 <가격>

지난 86년 12월이후 배럴당 18달러의 목표가격을 유지해 왔으나, 지난 3, 4월에 이미 국제유가가 배럴당 18달러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목표가격은 사실상 유명 무실하게 되어 상한을 의미하지 않는 참고가격으로 바뀌었다. 앞으로 당분간 배럴당 18달러 전후의 유가안정을 지향하는 OPEC의 기본방침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 <금후의 전망>

앞으로 OPEC 평균유가는 배럴당 15~18달러선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OPEC측은 회원국들이 산유쿼타를 준수하면 OPEC 유가가 오는 하반기 중 배럴당 18~20달러, 내년초에는 25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산유쿼타가 현재의 산유량(5월중 2천50만B/D)을 하회하고 있어 각 회원국이 실제로 준수할 것인지 의문시된다. 합의 직후부터 협정준수에 소극적 자세를 보여온 쿠웨이트가 도화선이 되어 또다시 증산경쟁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